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 친구가 들어주는 친구 이야기… ‘공감’이 가장 큰 무기

※ 이 사례는 김진선 경북 길주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길주중에는 저 말고도 여러 명의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길주중 학생들로 구성된 ‘또래상담사’들이지요. 또래상담부에서 활동하는 또래상담사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길주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 우수사례공모전’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또래상담사들의 활약이 눈부시지요.

또래상담사들은 또래 사이에서만 형성되는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 전문 교사도 해 줄 수 없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담을 받는 학생 뿐 아니라 상담을 해주는 또래상담사 학생에게서도 유의미한 성장과 변화가 나타납니다.

### 또래상담사, 높은 경쟁률에 면접 통과하고 교육 받아야

또래상담사는 상당한 인기를 자랑합니다. 매년 신입 또래상담사를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높을 때는 4대 1에 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담당 교사인 제가 면접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때론 기존에 활동하던 또래상담사 학생들이 면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래상담사의 가장 중요한 선발기준은 ‘성실성’입니다. 또래상담사가 되면 매주 한 번씩 Wee클래스로 와서 교육을 받거나 실습·상담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최소 1년간 활동해야 하는 만큼 성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상담사로서 ‘다른 친구들을 얼마나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가’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또래상담사가 되면 바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책자와 웹교재 등을 토대로 상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래상담사로서 자신의 역할, 정체성에 대해 돌아보는 한편 경청, 공감, 질문 등의 상담 기술도 훈련하지요. 또래상담사들이 배운 상담 기술을 실습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래상담사 자신들도 스스로의 마음 상태, 인간관계 등을 돌아보며 한 단계 성숙해지곤 합니다.

###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 상담의 기회

또래상담사들은 때때로 상담 교사보다 훨씬 훌륭하게 상담사의 역할을 해냅니다. 친구관계로 인해 고민을 겪던 한 2학년 아이는 한 학년 선배로부터 또래상담을 받은 후 급격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아이는 “또래상담사 형이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하이파이브도 해 주었다”면서 “그로 인해 학교생활이 전혀 외롭지 않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또래 상담에는 특별한 신청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에 또래상담사가 있다면 누구나 이들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이야기

를 털어놓으면 됩니다. 교사를 찾거나, 직접 상담실 문을 두드려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또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은 공감과 이해가 학생들에게 큰 안정감을 안겨 줍니다.

또래상담사들에게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래상담사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둘 수도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교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래상담사의 존재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주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가까이 있는 셈이니까요.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경기 포곡중 교사동아리 ‘교사 스터디 서클’

### “고민거리 털어놓으며 학생들 가르칠 에너지 얻어요”



원으로 둘러 앉아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경기 포곡중 ‘교사 스터디 서클’ 교사들. 경기 포곡중 제공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포곡중에는 19명의 교사들이 활동하는 교사 동아리 ‘교사 스터디 서클’이 있다. ‘교사 스터디 서클’은 교사들 간의 친밀도를 극대화하고 신입 교사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동아리. 이 동아리에 가입한 교사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학교 생활을 하며 힘들었던 점을 여러 교사들에게 털어놓고, 상대 교사의 고민에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포곡중 ‘교사 스터디 서클’을 만들어 4년째 이끌어 오고 있는 신만식 포곡중 수석교사에게 교사 동아리 운영 방식과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 둘러 앉아 서로의 일상 공유

국어, 수학, 영어, 역사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모이는 교사 동아리 서클에는 교육 복지사나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원어민 교사, 기간제 교사, 교직원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한 번 모이면 2시간이 넘게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모든 구성원들은 직위나 직책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원으로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말을 하거나 서로 말을 주고받는 식이 아니라, 일종의 마이크 역할을 하는 ‘토킹스틱’을 돌리며 자신의 차례가 되면 한 명씩 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신 수석교사가 먼저 ‘현재 자신의 마음 속 풍경을 계절이나 날씨에 비유해 말해보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요정이 나타나 소원 3가지를 들어준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와 같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 구성원들은 돌아가면서 현재 자신의 상태나 고민을 솔직하게 말한다. 업무로 인해 지친 교사와 교직원들이 서로 소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보며 학교생활의 힘든 점을 덜어내는 것.

신 수석교사는 “소통을 통해 평소 쌓여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각자의 마음을 치유한다”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 구성원들끼리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도 갖게 된다”고 말했다.

### 학생 간 문제도 대화와 경청으로 해결

교사 스터디 서클은 1년에 책 2권을 함께 읽고, 책의 내용을 돌아가며 요약 정리해 발표하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가르칠 수 있는 용기’와 ‘수업 성장’을 함께 읽었다. 활동은 책의 내용 중 개인적으로 와 닿는 내용이나 구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듣는 사람은 충고나 조언을 하기보다는 이야기 자체를 경청하며 말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난해 교사 스터디 서클에 참여한 한 교사는 “교사 생활을 하다보면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말할 기회가 부족하고,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줄 일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교사 스터디 서클 활동을 통해 큰 지지와 위로를 받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교사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은 교사들은 학급에 돌아가 학생들에게도 같은 방식의 대화와 경청을 시도한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나 서로 감정이 상한 학생들을 원으로 둘러앉힌 뒤 각자의 마음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면 학생들 사이의 문제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mailto:songi121@donga.com)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mailto: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